

學生 參與의 方向과 實踐 方案

李 英 穗

(京畿大 教育學科)

1. 머리말

우리의 사회는 8·15 해방 이후 40여 년 동안에 급격한 변화를 겪어 왔다. 그것은 아마 다른 어떤 나라에서도 그 類例를 찾아보기 힘들 것이다. 다만 그 변화의 모습에서 얼마 만큼의 성취와 만족감을 얻었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 하더라도 그 변화의 質과 量은 可憚할 만하다. 이러한 급격한 사회 변동은 대학에서도 몇 차례 構造的 변동은 물론이거니와 대학의 본질마저도 위태롭게 한 적이 있었다.

우리의 대학이 감수할 수밖에 없었던 대학의 激動은 대부분의 경우 대학의 自律과 학생의 現實參與 문제와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 오히려 民主化의 요구라는 점에서 본다면 학생의 現實參與가 民主化를 先導했다고 하겠다. 지난 9월 22일에 中央日報에서 조사·발표한 국민 생활 의식 조사에 의하면, 최근의 6·29 선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세력으로 대학생(40.8%)을 지적하고 있다.

학생이 國運을 짊어지고 사회 일선에 나선 일은 일제시의 2·8 독립선언, 光州 학생운동을 비롯하여 4·19 혁명에 이르기까지 이번 6·29 선언이 처음은 아니다. 그러면서도 60여 년이 지난 오늘에 이르러서도 여전히 학생이 앞장 서야만 할 사태가 있음은 우리 사회가 어느모로 보면

그만큼 진전이 적었던 증거이기도 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대학생의 現實 참여인 학생 운동에 그 정당성이 부여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누적된 정당성은 학생들에게 사회를 변혁시킬 수 있다는 강한 신념을 의식 속에 자리잡게 한 所以를 만들어 주게 되었다. 다만 학생들의 이러한 現實 참여 활동이 과격한 현상을 띠게 되거나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치달아서 사회 안녕 질서를 어지럽히고 혼란을 일으킨다는 우려에서 이를 비난하고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가 하면, 成年이 다된 학생들에게 또한 감수성이 예민한 학생들로 하여금 그렇게 직접적이고 무절서한 의사 표시를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 사회·정치적 여건이 먼저 문제되어야 한다는 이해성의 일면을 지닌 수긍론 내지 긍정론의 입장도 있게 되는 것이다.

흔히들 이러한 문제를 論議하고자 할 때 지나친 兩分法(dichotomy)의 發想과 아울러 思慮心의 발동으로 전자의 입장을 두둔하거나 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마치 자유의 伸張을 위하여 자유의 문제를 논의하고자 할 때 흔히 자유와 방종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고 言明함으로써 其實은 자유에 대한 논의를 留保하거나 포기하는 것과도 같은 입장이다. 따라서 筆者는 후자의 입장에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다만 어떤 일이 옳이나, 옳이나를 결정하는 것은 그

일의 성취를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의 선택이 최선이었느냐는 것이 바로 그 기준이 된다는 원칙은 가능한 한 고수하면서, 또 그 수단이 실현되는 마당의 윤리는 대학의 자유와 자율의 행사로 한정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필자의 입장은 정치에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즉 정치적 운동이란 큰 소리로 외치며 실지로 달성하려고 하는 目標에 따라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그 실현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수단에 의해서 판단되어야 한다는 믿음의 적용이다. 그리고 수단의 판단은 민주주의의 원칙에 근거한다.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서 학생의 현실 참여와 자치 활동의 정당성과 이에 대한 학생들의 지각 정도를 알아봄으로써 학생 참여의 방향 설정에 기초로 삼고자 한다.

2. 學生 參與의 方向

대학생이 갖고 있는 학생 참여의 지각 정도를 한 대학신문에 실린 학생의 글로 알고자 한다.

“大學이 한 社會의 정의를 위한 代辦者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歷史的으로 어려운 時代狀況일수록 대학이 어떤 자세를 취해 왔는가 하는 사실로써 충분히 증명되어 왔다. 王朝時代에도 대학에 準하는 成均館이 부당한 王政이나 社會倫理의 타락에 대해 끊임없이 批判者의 위치에 서 있었던 점은 참으로 놀랍다. 대학이 批判者의 위치를 지키고 社會正義의 구현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이유는 한 社會의 識者들이 갖는 행동 결핍이다. 政治·經濟·社會의 지도층에 나타나는 倫理意識의 결함을 깨끗한 안목과 참신한 지성으로 바라볼 수 있고 행동으로 비판을 할 수 있으며 支配層과 被支配層 사이의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까닭이다.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명을 부여받고 있는 입장에 선 大學人들의 일상 생활이 상식의 軌를 벗어난다면 대학은 社會적으로 信望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입으로는 自由다, 民主다, 혹은 正義다, 眞理다 하면서 행동에 있어서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경우를 우리는 너무 자주 보게 된다.” (高大新聞, 1979.11.27)

그리고 어떤 옥중서간집에 실린 한 구속 학생의 편지는 현실 참여의 한 모습을 통해 대학인의 아픔을 알게 해준다.

“‘學內냐, 學外냐’의 문제는 결코 아닙니다. 전체와 분리된 부분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의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했고 그 노력이 학생으로서의 위치를 통해 발전된 것, 이것이 저와 제 동료들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설명입니다.”

이상 두 학생의 진술에서 大學人의 知性과 自律의 眞面目을 보는 것 같다. 오히려 지난 몇 년 동안 학생의 사회 참여 과정을 지켜 보았던 대학인으로서 悔恨과 부끄러움을 느끼게 된다. 이러한 학생들에게 무슨 지도가 필요하고 또한 가능할 것인가?

어쩌면 지나친 단순화나 일반화의 오류라고 말할지 모르나 가르치는 사람으로서의 학생에 대한 기본 전제이고 믿음이다. 만약 예외가 있거나 상이한 많은 학생이 있다면 그것은 곧 가르침의 대상이고 가능성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것은 기쁨이고 보람이며 희망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대학의 財産인 것이다.

대학에서의 학생 참여는 학생 자치와 사회 참여의 문제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4·19 이후 학생의 사회 참여는 우리나라 교육 발전에의 새로운 계기 형성과 민주화예의 공헌으로 학생들의 발언권과 자치 활동이 확충·장려되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사회 참여가 빈번해짐에 따라 그 기본 방향과 한계성이 점차 문제시 되기도 해서 많은 주위 사람들뿐만 아니라 학생 자신들 사이에서도 혼동된 의구심을 낳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거나 또는 학생들의 사회 참여 활동이 더욱 과격해지는 것은 다른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우선은 그들이 주장하는 이상과 이념을 직접 실현할 수 있는 담당 계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주장하는 民主, 社會正義, 民族主體性 確立 등의 문제는 바로 기성 세대가 해결해야만 할 학원 외적인 문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는 成人이 된 學生들은 그들이 주장했던 이념과 주장을 成人社會에서 實現하려고 하는 계속적인 노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즉 그들이 가졌던 이상과 문제 의식이 이론적 이해의 부족으로 인해 쉽게 변질되거나 기성 成人社會에 同化되어 버린 것이다.

세째로는 권력 엘리트와 국민 대중과의 양극화 현상에서 학생들의 주장을 調整해 주는 中間集團이 없기 때문이다. 自律的 中間集團의 허약성과 학생의 사회 참여 활동의 과격화는 상관이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보다 根本的인 學園 內的인 문제로는 校內 民主主義의 實踐을 위한 學習 經驗의 不足을 들 수 있겠다. 이는 무엇보다도 學生들의 自治能力과 自律精神이 바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에서의 경험 부족과 대학에서의 건전한 生活 經驗이 마련되지 못하므로 해서 스스로 독단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다.

大學은 야스퍼스가 말했듯이 인간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좋은 이상적인 제도라 한 것처럼 대학이 갖고 있는 知性과 전문적 권위, 그리고 自由의 본질을 바탕으로 무한한 知的 刺戟과 知的 호기심을 充足시킬 수 있는 創造의 터전이기 때문에 젊은이들을 사로잡을 수 있는 能力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교수와 학생, 그리고 학교 당국의 노력에 따라 學生의 참여 욕구는 充足될 수 있을 것이다.

學生들의 參與 欲求是 반드시 社會參與만이 전부가 아니며 그것이 전부일 수가 없다. 오히려 고등학교 시절에 지나친 입시 준비 때문에 유보했거나 단절되었던 욕구로 해서 대단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

集團 속에 살면서 진정한 동지를 사귀고 싶고, 사랑에도 빠지고 싶으며, 그동안 마음껏 읽지 못했던 책들과 씨름도 하고 싶고, 교수들과의 欣快한 대화를 통해서 새로운 삶의 도전도 하고 싶으며, 오묘한 진리의 세계에 빠져들어 자신을 내맡기고도 싶은 욕망으로 가득차 있는 한 인간 존재인 것이다. 스스로를 무한한 개방성 속에서 자유롭게 하고 싶으며 또한 자신을 어떤 규율 속에서 엄하게 다스려 보는 쾌감도 누려보고 싶은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과의 삶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생활이야말로 무한한 가능성 바로 그것인 것이고 또한 大學의 사명인 것이다. 따라서 大學은 外部의 어떤 統制나 간섭이 이러한 學生의 본질과 大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이를 위해 방패 역할을 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에 大學 자체가 이를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방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 상처로 인해서 대학 본연의 자세가 흐트러질 것이다.

끝으로 학생 참여의 방향 설정에 있어 논의의 삼아야 할 것으로 산업 사회의 특징을 들 수 있다. 특히 대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는, 첫째로 사회 조직의 형식으로서의 관료주의(bureaucracy), 둘째로 엘리트 充員의 방법인 能力主義(meritocracy), 세째로 權力의 기초로서의 技術主義(technocracy)를 들 수 있다.

이러한 諸 特徵들은 既存의 價値와 상당한 갈등을 야기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인간 활동의 가능성을 확대시키는 자유로운 힘(liberalizing forces)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大學에로의 이러한 특징 流入은 대학을 하나의 싸움터로 바꾸어 놓는다. 특히 정치적·경제적 시장에서의 자유롭고 온전한 참여(participation)를 전제로 한다. 이러한 참여의 기회는 오늘날 自治(self-government)와 동일한 것이며 自治란 또한 目的 達成과 人間 活動의 통어에서의 참여를 의미하게 될 것이다.

산업 사회의 특징들은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들에게 評價體制의 변화로 인한 알력을 주기도 하며, 전문화란 이름하에 세분화(specification)를 초래하므로 교양교육의 의미를 달리 하게도 한다. 그리고 지식 시장에 대한 대학의 의존성을 증대시키고 있다. 특히 관료화는 능률을 가져다 준다는 일반적 이점이 있을 수 있으나 학문적 의사 결정(academic decision-making)을 개선하지 못하므로 해서 사회 체제로서의 大學의 自律性을 쇠퇴케 하였다.

학생들의 참여 활동은 학습의 자유를 포함한 대학의 자유, 즉 학문의 자유라는 범위 안에서 논해져야 할 것이다. 다만 大學이 교수와 학생의 학문공동체라는 점에서 교수의 지도와 간섭 또는 통제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교수

의 통제와 간섭은 학생들이 사색하고 논의하여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라는 범위 안에 존재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학생 참여의 방향은 곧 교수가 제공하는 교육 활동, 그리고 학교가 제공하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결정할 수 있다.

다양한 학습 경험과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기회를 통해서 현명한 선택자로서의 인간 (man as a chooser)을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이 현명한 선택자가 되려면 自律을 전제로 해서만 가능하다. 학생들 사이에 증대하고 있는 소외 의식은 교육의 결과 그들이 생활에 적합하다고 믿고 있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하는 무능력에서 대부분 기인하고 있다고 한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학의 종류에 다양화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다양화를 통해서 대학 자체내의 광범위한 교육적 선택이 존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끝으로 대학인으로서의 학생이 비판 정신과 그 능력의 하나로 사회 참여를 행할 때, 그 통제의 기준은 학적 기준에 의거한 교육 행위로서의 통제의 간섭 그리고 지도가 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정치·경제를 포함한 사회 여건이 이러한 학적 기준과 교육 행위로서의 통제가 전연 불가능하다고 한다면, 이러한 경우 학생들의 현실 참여는 大學人의 自律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회 질서 또는 그보다 높은 가치를 무시하거나 파괴하는 행위를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마치 4·19 학생의 거를 대학이 갖고 있는 전문적 권위나 自律로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로 귀결된다.

3. 學生 參與를 위한 實踐 方案

학생 자치와 학생의 사회 참여를 위한 방향 설정을 다양한 교육적 프로그램의 제공과 그 선택 능력의 배양으로 규정짓는다면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예상의외로 많이 있을 것이다.

첫째, 대학이 어느 정도의 교육력을 갖고 있느냐의 관점에서 출발할 수 있겠다.

우리나라에는 1987년 현재 전문대학과 각종

학교를 포함하여 259개의 고등교육기관에 모두 1,291,585명의 학생이 있다. 130만에 가까운 학생이 모두 어떤 수준에 이른 엘리트는 아닐 것이다. 知的 수준에서만 아니라 각자가 갖고 있는 가치, 흥미, 가정적 배경 그리고 목적 의식이 서로 다양하다. 이와 같이 다양한 학생들을 대학은 현제 받아들이고 교육하여 졸업하도록 돕고 있다. 그 중에는 知的 能力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 가치관이나 태도면에서 逸脫에 가까운 사람, 모난 사람 등도 있겠지만 그러면서도 大學에 와서 새롭게 자기를 갱신하거나 자기 능력에 재도전하고자 하는, 그리고 새로운 영역을 찾아 희열을 느끼고자 노력하는 진지하고 성실한 사람들도 많이 있다. 이들을 위해서 大學은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초점을 모은다면 여러 가지 방법이 고안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은 수업의 質을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학생을 대하는 진지한 태도, 학문과 삶에 대한 열망 등이 학생 참여 활동에 크게 영향을 미칠 것이다. 특히 교수와 학생과의 대화가 단절되어 있다고 하는데 교수와 학생과의 채터링(chattering)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學習의 自由라는 관점에서 그 선택의 폭을 넓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이를 위해서 輾轉制度의 허용이나 교육과정 편성에서의 선택의 폭을 擴張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현재의 전공필수 과목 과다 책정이나 교양 과목에서 법정 이수 과목의 강요 등은 학생들에게 급격하게 변하는 사회 요구에 적응하기 위한 선택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그리고 복수전공, 부전공의 이수를 권장하기 위한 장치들도 이에 준한다. 특히 학생들이 읽을 수 있는 서적의 제한을 과감하게 해제하고 이를 해당 과목이나 학과에서 활발한 논의를 통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이끌어야 할 것이다. 제한을 우선으로, 능사로 할 경우 지하 서클의 결성 및 독서회를 통한 독서와 그 오페는 막을 길이 없다. 그리고 여건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서서히라도 학생의 교수평가제도 채택해 볼 만한 것이다.

세째, 학사 운영의 자율성과 신축성이라는 관점에서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대학이 대중교육의 수준에 이르고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다인 수 학급, 즉 過密學級の 운영이 불가피한 것이냐는 점은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 한 學科의 정원을 200~300 명으로 책정한 것과 교양·교직 과목을 대규모 학급으로 운영하고 있음은 그 득보다는 실패가 많다는 것을 알고 개선을 해야 한다. 과밀 학급의 운영은 학습의 질을 떨어뜨린다는 직접적인 결과보다는 大學生活에서 학생들을 소외시켜 바람직하지 않은 다른 일에 관심을 갖도록 만드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리고 시간표 작성시 학년별·학과별로 고정 시킴으로써 또한 학생들의 선택의 폭을 좁히는 결과를 낳는다. 어떤 영역이든 또는 어떤 형태로든 학생들에게 선택의 기회를 제한한다는 것은 참여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되고 그 결과는 學內가 아닌 學外의 일에 참여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시대의 변천이나 사회의 요구에 따라 교육과정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해서 교육과정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적용토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특히 대학은 학외의 지식 시장에 크게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수 방법의 다양화를 기하기 위하여 팀 티칭, reading course 등의 채택도 가능하다. 이러한 다양한 교수 방법 또는 학습 방법의 채택은 교수평가제의 도입을 위한 기초 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학과별로 높이 구축되어 있는 벽을 허물어 버리는 용단도 필요하다.

네째, 학생을 이해하기 위한 기초 자료의 수집을 통한 학생 참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학생 이해와 학생 지도를 위한 기능을 담당하기 위하여 각 학교별로 학생생활연구소(Guidance and Counseling Center)가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취업 지도를 위한 자료의 수집이나 제공에 그치고 있어서 그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학생의 이해를 위해서는 知的 能力뿐만 아니라 개인에 관한 정보를 수합하고 분석해야만 한다. 특히 교수와 학생간에 공동체감이 결여되고, 학생은 익명성으로 인한 소

외감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해서 적절권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에서는 자아의 재발견, 새로운 과제에 대한 도전감 같은 것을 갖도록 상당한 배려를 프로그램 작성에 쏟아야 할 것이다. 어찌면 대학 이전까지의 학교교육은 성취감이나 만족감을 주었다기보다는 어떤 형태로든지 실패감이나 좌절감을 주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웬만한 대학은 자체내에 컴퓨터 시설을 갖고 있기에 자료의 수집이나 분류가 보다 용이한 셈이다. 특히 학교 운영에 관한 학생들의 요구 사항 또는 불만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연구소의 활동이 보다 효과적이다.

다섯째, 학생 자치 활동이나 각종 學內 學外 및 서클 활동에 대한 시각을 달리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몇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다.

우선은 학생들에 대한 이해의 정도인데, 지금은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비해서 학생들의 연령이 비교적 높은 편이다. 연령이 높다는 것은 成人(adult)이라는 것으로 수용해야 하고, 성인이라면 심리적으로 自律的(self-directed)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때문에 지나친 지도나 통제는 간섭이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반발을 하기도 한다. 더구나 그 지도나 통제가 교육적 사랑에 근거한 교육 행위의 결과가 아니고 외부의 강제나 간섭에 근거한 것일 때는 실효를 잃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는 지도나 통제를 받는 학생이 지도하는 교수를 동정하거나 오히려 지도(?)하려는 현상이 생기게 된다.

따라서 학생 자치 기구의 구성에서부터 그 활동에 이르기까지 대학과 교육 활동이라는 범위 내에서 민주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이것은 大學 自體가 갖는 고유한 自律權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학회나 서클의 활동에서는 해당 지도 교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도를 하기 위하여 부단한 체터링(고유한 목적 추구를 위하여)과 관심을 보여야 한다. 학문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교수에게는 더없는 짐이 될지도 모르나 그것도 연구와 교수의 한 부분이 될 것이다.

끝으로 대학 운영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어느

정도로 어떻게 반영하여 참여케 하느냐의 문제이다.

대학 운영에서 학생이 관련되는 것이라면—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가능한 한 반영·참여토록 하여야 한다고 본다. 다만 참여의 형태가 어떤 위원회의 구성원이 되어서 직접 발언하거나 표결하는 것을 말하지는 않는다. 예를 들면 학생복지위원회, 기숙사 관리위원회 등 학생들과 직접 관계되는 분야에서는 직접적인 참여도 가능하리라고 본다. 이와 같이 학교 운영에 직접적인 참여는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반영하는 방법은 최대한으로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학생들은 교수의 가르치는 방법에도 도전하지 않고 교수의 교수 자료조차도 문제 삼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지만 학생들은 교수의 입장을 단순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비척하고 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단일 요인으로 설명되지는 않겠지만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일이다.

따라서 학생들이 학교 당국이나 교수들의 입

장을 이해하기 바라고 설득하려고만 하지 말고 학생들의 요구와 불만이 무엇이며, 왜 그러한 요구를 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노력이 설득하려는 노력과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옛날에는 학생이 없어도 대학이 존재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학생 없는 대학이란 상상하기 힘들다. 과거 어느 때보다 공동체 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본다. 학생 활동과 사회 참여는 大學의 본질과 교육 기능 속에서 개방되고 장려되어야 할 것이다. 학생 참여 활동의 開放性과 그것에 대한 장려는 教育的 選擇行爲로 한계가 지워져야 한다.

大學은 理性人·自由人의 共同體이다. 文化를 創造하는 現場이며 實驗室이다. 그러므로 學生들에게 제공되는 教育적 선택 행위도 創造와 實驗을 위한 目的이 타당한 것이고 무한히 열려 있어야 한다.

끝으로 大學人—교수와 학생—의 참여 활동은 그 限界를 설정하려는 접근보다 참된 선택 가능성에의 도전에 그 意義를 두어야 할 것이다. *